

어르신 땀 깃든 제품들 하나로마트서 만난다

영암 경로당 협업작업장 생산품, 기찬장터 등 8곳 입점
우승희 군수 “지역 유통망 연결해 즐거움·소득 뒷받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이 경로당 협업작업장에서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지역 하나로마트와 기찬장터에서 판매하는 등 판로 확대에 나선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현재 영암지역 16개 경로당 작업장에서 천연수세미와 편백 제품, 생활

복, 다육식물, 전통수의, 손뜨개 제품과 각종 공예품 등을 만들고 있다.

경로당 협업작업장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공동작업에 참여하고,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해 소득도 얻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어르신들이 정성 들여 만든 제품이

안정적인 판로를 만나 실제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유통망과의 연계에 나섰다.

지난 13~14일에는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 9개소와 기찬장터 관계자를 만나 협업작업장 생산품을 소개하고 입점과 판매 방안을 협의했다.

그 결과 7개 하나로마트와 기찬장터에 별도 판매공간을 마련해 협업작업장 생산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별 작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판매를 지역의 상시 유통망으로 넓혀 주민과 방문객들이 가까운 곳에서 제품을 만나고 구매할 수 있

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영암군은 16개 경로당 협업작업장의 생산품을 함께 알리고 판매하는 ‘영암형 통합브랜드마켓’ 구축도 추진한다. 작업장마다 가진 제품의 특색은 살리면서 공동 브랜드와 홍보·판매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유통망과 온라인 판매까지 판로를 넓혀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4일 16개 협업작업장 대표자 회의를 열어 공동 브랜드와 판매 방식 등에 대한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경로당을 찾아가 보면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좋은 제품이 참 많은데, 정작 판매할 곳이 마땅치 않아 아쉬움이 있었다”며 “어르신들의 손길과 정성이 담긴 제품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고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유통망과 연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 협업작업장이 어르신들에게 일하는 즐거움과 소득을 드리고,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어지는 영암형 노인일자리 모델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최근 전국에 진도군을 널리 알리고 있는 가수 송가인을 ‘진도군 홍보모델’로 재위촉했다.

가수 송가인, ‘진도군 홍보모델’ 재위촉

지역 축제·관광지·농수특산물 전국에 홍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은 최근 전국에 진도군을 널리 알리고 있는 가수 송가인을 ‘진도군 홍보모델’로 재위촉했다.

진도군 홍보모델은 진도군을 대표해 진도의 관광, 문화, 농수특산물 등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진도군의 주요 홍보활동에 함께하는 역할을 한다.

가수 송가인은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우승, 음악방송과 콘서트,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진도 출신 가수로서 고향인 진도를 알리는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진도군은 여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송가인을 통해 명랑대첩축제와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등 진

도군의 대표 축제, 운림산방과 세방나조 등 관광지, 독보적이고 아름다운 문화예술, 대파와 구기자, 김과 전복, 홍주 등 농수특산물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제각 진도군수는 “진도군의 자랑인 송가인씨를 다시 한번 우리 군의 홍보모델로 위촉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진도의 매력을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문화예술이 숨 쉬는 진도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수 송가인은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진도군 녹진관광지 일원과 진도대교 등에서 열리는 명랑대첩축제의 ‘명랑 트로트 밤’에 출연해 축제를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강진 농산물 홍보 AI로 날개 단다…AI 마케팅 교육

군, 스마트강소농 지도자 육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높이고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스마트강소농 지도자 육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주 2회, 총 6회에 걸쳐 진행됐다. 지역 농업인 20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농장과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직접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주요 교육 내용은 다양한 AI 도구 이해, AI를 활용한 농장 소개 만들기, 농산물 홍보 이미지 제작, 상품 상세페이지 만들기, 홍보영상 제작, 영상 편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온라인 판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운영해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인공지능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 농업인도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강사를 배치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교육생별 실습 진도와 어려움을 살펴며 개별 지도를 실시해 모든 참



‘인공지능 활용 농산물 마케팅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의 모습.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청

여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보 자료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농업인은 “그동안 농장과 농산물을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홍보 이미지와 상품 설명 자료, 영상까지 직접 만들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며 “농산물 판매와 소비자 홍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산물의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마케팅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판로 확대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이진국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완도, 31일까지 관광 사진 공모…2개 부문 64명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이 ‘2026 완도 여행, 추억을 담다!’ 관광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한다.

공모전은 완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명소 등 관광자원을 사진에 담아 완도의 매력을 알리고 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출품작은 2025년 1월 이후 촬영한 완도군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미발표 작품이어야 하며, 공모전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wandovisit@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디지털카메라(드론 포함)와 스마

트폰 카메라 부문으로 나눠 진행하며, 64명을 선정해 총 15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수상작은 9월 중 완도군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완도군 관광 홍보·각종 홍보물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를 여행하며 담아낸 아름다운 순간을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초대석



서영교 국제 법제사법위원장

“약자의 눈물·억울함 풀어주는 ‘진짜 민생정치’ 펼치겠다”

초대석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대한민국 첫 통합의회 성공의 길 반드시 열겠다”

지금 이 사람



고잉메리호 최예진 활동가

“웃자고 시작한 하루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됐다”

남도 예술인



정일행 극단 장이 대표

“관객이 무대와 함께 호흡하는 공연을 만들고 싶죠”

2026.08 vol. 159

창간 13주년 특집호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人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전남의 보물섬



여수 송도
바람에 기대어 역사를 만들다

이달의 이슈



광주공항 활주로에 들어설 반도체 도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800조 프로젝트’가 움직인다



커버스토리

민행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통합특별시 성공…
대한민국 균형발전
새역사 열겠다”

800조 반도체 클러스터 현실화…
연관·협력기업 유치
교통 대전환·‘올타’·AI 플랫폼 등
자율주행 메카 조성